慶運宮 重建 木工事의 豫算과 實入에 관한 연구

李權英
(동부산대학 조교수)
徐致祥
(동명정보대학교 부교수)
金純一
(부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慶運宮은 1895년의 俄館播遷 사건을 통하여 한때 우리 근세사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다. 경운궁은 원래 월산대군의 私邸였으나 임란 때 선조가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御居聽政의 궁궐로 되면서 경운궁이라 불려졌으며, 광해군이 이곳에서 즉위하기도 하였다.

경운궁은 1904년 2월 咸寧殿을 수리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로 中和殿을 비롯한 중심부의 건물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화재 직후 고종은 복구의 뜻을 조정에 전달함으로써 조선왕조 최후의 궁궐조영인 경운궁 중건공사가 시작되었다. 즉시 重建都監이 설치되고 각종 물자의 조달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수하였다. 도감설치 다음 달에 卽阼堂, 昔御堂, 景孝殿 등 부속건물의 上樑이 이루어지고, 그 해에 중화전, 함녕전 등 중심시설의 대체적 윤곽을 갖추고 이듬해 중화전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대역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경운궁에서 순종의 즉위식을 거행했으며, 고종은 양위 후 승하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처했다. 이처럼 경운궁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국가와 왕실의 멸망을 지켜 본 역사의 무대였던 것이다.

경운궁 중건공사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순수한 국내재정과 기술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 쓰러져 가는 국가주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는 간절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당시는 일제의 식민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면서 국가재정권의 상실은 물론이고 국가주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급기야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마저 강탈당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공사의 추진은 극히 어려웠다. 공사기간에 국내의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방의 結錢을 앞 당겨 집행하는 등 어렵게 財源을 확보한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공사추진의 절대관건인 목재의 조달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소요재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했겠으나, 可合木材의 求得 여부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목재의 부족현상은 조선후기 이래로 한층 심화되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축활동을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밀매행위가 성행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목재시장도 꾸준히 활성화되어 갔다. 京江邊 목재 貯留地 주변의 목상

들의 매매행위가 활발해지면서 종래의 産地外道의 貢納이나 貢人 등에 의한 공급 대신 木商들이 國用 목재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였다.

본 공사에서 추녀나 대량과 같은 일부 長大材는 外道의 貢納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나, 상당량은 이러한 목상들로부터 공급되었다. 이와 같이 목재의 상품화가 진전된 것은 부재의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척도기준이 보편화되어 적정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종래의 목재공급체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당시대의 건축생산활동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공사가 추진될 당시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한 전환기로서 목재의 조달에 따른 건축생산체제상의 변화의 추이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조선후기 최후의 궁궐조영인 경운궁 중건공사를 대상으로 소요 목물의 조달에 주안하여, 목물예산 책정방식을 통한 당시대의 건축생산활동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건축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감안하면 본 논문은 조선후기 건축생산사의 서술을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1차 사료로는 일종의 공사견적서인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와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를 비롯하여, 월별 금전출납기록인『重建都監會計』, 월별 治鍊匠役內容을 기록한 『匠役記綴』, 중화전을 비롯한 일부 건물에 대한 私商들의 納品物木 內譯과 선불금을 기록한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末撥冊』, 업종별 납입물품에 대한 지불액을 기록한 『德壽宮重建都監上下記』, 營造職制에서부터 實入까지 실행내용을 기록한 『慶運宮重建都監儀軌』 등이 있다.

본 논문은 慶運宮 重建工事의 體制와 執行을 중심으로 한 金純一의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硏究」[1]의 후속연구로서 이루어졌다.

2. 工事槪要

2-1. 工事內容

중건공사는 1904년 2월 29일에 있었던 화재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화재 직후 조정에서는 失火處所에 대한 검찰을 통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건을 논의한 즉, 그 다음날로 重建都監을 설치하고 공사준비를 시작하여 5일 후에 일부 건물의 開基와 治木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즉시 복구공사를 개시한 것은 그 전부터 이어져 온 수리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이지만 인력과 자재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복구공사를 관장할 중건도감을 설치한 곳도 직전까지의 中和殿 營建都監 자리였다.

어쨌든 당시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서둘러 추진한 데는 경운궁의 복구에 대한 고종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904년 3월 12일에 卽阼堂, 昔御堂 定礎를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卽祚堂, 昔御堂, 景孝殿, 浚明堂, 咸有齋, 欽文閣 등이 차례로 완공된다.

그러나 중화전을 비롯한 주요 殿閣의 공사는 순조롭지 못한 것 같다. 그해 8월 13일에 중화전과 함녕전을 개기하지만 입주와 상량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도 재원 확보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8월 이후로 시작되는 중화전 공사 등의 소요자재는 새롭게 조달해야 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예로서 京江邊의 治木所로부터 都監으로 목재를 운반해 들이기 위해서 6월 23일에 沙村里로부터 南門까지 도로를 보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며[2], 중화전에 쓸 春舌, 大樑 등의 長大材를 작취운송하라는 지시가 7월 말경에 내려졌다[3]. 이후 같은 내용의 지시가

1) 金純一,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硏究 -工事의 體制와 執行을 中心으로 」, 東國大 박사논문, 1983

2)『慶運宮重建都監儀軌』 照會 甲辰6月23日 內部條

8~10월 수차에 걸쳐 강원도와 전라도에 하달되는 것[4]도 물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중화전 등에 쓸 물력이 과대하여 준비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공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본 공사에 관한 기록 중 『慶運宮重建都監儀軌』를 제외한 『重建都監會計』[5]나 『匠役記綴』에서도 중화전 등의 공사가 시작되는 8월부터 공사가 완료된 1906년 12월까지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 앞서 작성된 『豫算明細書』[6]도 이 기간의 中和殿, 中和殿 行閣, 中和門, 咸寧殿, 咸寧殿 行閣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8월 이전의 공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준비된 물력으로 복구하는 데 그친 반면, 이후의 공사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공사의 所入木物과 木物工役의 성격은 1904년 8월을 기점으로 이전의 1차 공사와 그 이후의 2차공사로 구분[7]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도 2차공사로서, 관련 기록인 『豫算明細書』, 『重建都監會計』, 『匠役記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차 공사에서 예산명세서가 작성된 건물별 공사의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중화전을 비롯한 주요 5개 건물의 규모 및 부재 수량 변경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1. 중건 2차공사의 주요시설물별 공사변경 내역

구분	규모변경		공사중 변경 부재			
	계획	실입	追加	削減	削除	新入
中和殿	御間18尺 4間 夾間14尺 16間 총20칸	변화없음	昌防 8 등 12종	柱 頭 등 6종	斑子廳板	加大樑2 加春舌4 등 8종
中和殿 行閣	총92칸	2間通108間 間半通27間 총135칸	平柱16 高柱48 合樑20 宗樑18 昌防20 圓道里44 등 17종	雙窓 小雙窓 雙映窓 甲窓	小雙映窓 上下帶	柱木36, 間半樑18 道里90, 宗樑18, 臺工18 등 32종
中和門	총6칸 御間16尺 夾間12尺	御間16尺 夾門13.36尺	長舌 按推工 多案	童子柱 등 17종	左右臺 등 16종	長花盤
咸寧殿	樑通10尺 9間, 道里通10尺 4間 北退6尺 4間 총40칸	변화없음	無頭樑2 등 18종	昌防24, 機頭樑2 柱頭31 등 13종	獨工45 등 7종	物獨工23 등 20종
咸寧殿 行閣	총70칸반	변화없음	平柱2 등 10종	高柱2, 道里2, 間半樑2 등 20종	半間耳機 등 7종	退樑2 등 27종

여기서 중화전은 규모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부재 종류와 수량에서 차이가 난다. 즉 추가되는 부재로는 加大樑 8개, 加春舌 4개 등 8종이며, 수량이 바뀌는 경우는 昌防, 平交坮 등 18종이다[8]. 칸수의 변화는 없으나 이전의 重層으로 영건된 중화전보다 추녀를 한층 길게 하기 위한 구조적 보강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대량이나 가추녀, 창방 등이 첨가된 것이다.

중화문의 경우는 칸수에 차이는 없지만 협칸의 폭은 다소 바뀐다. 계획상의 협칸은 폭이 12척이나 실행에서 13尺 3寸 6分으로 커졌다. 중화문은 공사 중에 중심축선상에서 4칸을 退築하는 설계 변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부재수에서도 구조부재는 변함이 없으나, 지붕재, 수장재, 공포부재는 감소 또는 증가되기도 하는데,[9] 특히 左右臺, 沙瑟花盤, 小柱頭, 大接小累 등 16종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10]

3)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7月27日 江原觀察部條
4)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9月初10日 全羅南北觀察部條, 同 甲辰10月17日 江陵郡 蔚珠郡 平海郡條 등 참고
5) 이후 『慶運宮重建都監儀軌』는 중건도감의궤 또는 의궤, 『重建都監會計』는 중건도감회계라 약칭한다.
6) 『豫算明細書』로는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가 있다.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에는 「中和殿行閣九十二間新建豫算明細書」와 「中和門六間新建豫算明細書」가 포함되고,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에는 「咸寧殿行閣七十二間半新建豫算明細書」가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를 포괄해서는 예산명세서로, 각각에 대해서는 중화전예산명세서 등으로 통칭한다.
7) 『慶運宮重建都監儀軌』 尺量條와 稟目條에 나타난 1차공사 시설물은 卽阼堂, 昔御堂, 浚明堂, 欽文閣, 景孝殿, 含有齋이고, 2차공사 시설물은 永福堂, 咸喜堂, 養怡齋, 中和殿, 咸寧殿, 中和門, 각종 附屬行閣 및 門樓 등이다.
8) 추가부재로는 加大樑, 加春舌, 朴空草葉, 松竹, 散防, 大尾緣舍, 物翼工, 長花盤 등이 있고, 수량변경부재로는 昌防, 平交坮, 서까래 蓋板, 長舌, 簷次, 小累, 按推工, 甫兒支, 雲工, 柱頭, 遠音, 包頭柱, 귀살미첨차 등이다.
9) 수량변화 부재로는 장여, 안초공, 다란, 동자주, 장연, 단연, 선자연, 부연, 고대, 서까래 개판, 풍판, 모끼연, 행공, 보아지, 포순각청판, 인방, 소로 등이다.
10) 제시된 것 외 松竹, 蛇目, 柱添, 沙瑟花盤, 添蓋, 左右坮, 小柱頭, 大接小累, 門板, 板壁板, 沙籠坮, 法首, 沙籠箭, 沙籠廳板이 있다.

중화전 행각은 이전과 규모면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물이다. 당초 예산명세서에서 총 92칸으로 계획된 것이 2칸통 108칸과 1칸반통 27칸을 합한 총 135칸으로서 43칸이나 커졌다. 이 건물은 중화문에 연결된 건물로서 중화문의 4칸 退建에 따른 규모의 변화와 함께 이를 위한 별도의 부재나 물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함녕전은 규모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일부 구조재를 비롯한 마루재, 수장재, 창호재 등의 종류와 수량은 크게 차이나는데,[11] 이는 寢殿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작은 치수의 부재가 많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昌防 24개와 柱頭 31개가 감소되는 것은 익공식 건물로 대체 부재도 없으므로 내부공간의 변경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거용 건물로서 각종 窓戶나 부수적인 修粧材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밖에 楹頭樑 2개는 無頭樑으로, 翼工 45개는 無翼工으로 대체되면서 수량은 감소된다.

함녕전 행각도 계획과 실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平柱와 退樑이 2개 증가한 대신 高柱와 間半樑은 2개가 줄어든 것은 건물 형태의 변경이 가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지붕재를 비롯한 각종 창호재나 마루재, 수장재, 천정재 등의 수량도 추가되거나 바뀌었다[12].

이러한 물량의 수급이 계획과 차이나는 것은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었겠으나, 그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중화문은 1904년 12월 16일에 입주하고, 그 8일 후에 상량까지 마친 것을 이듬해 3월 6일에 4칸 퇴출한 후 그달 18일에 다시 정초하여 6월 3일에 현판 입배한 것으로 보아서 다소의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중화문의 좌우로 연결되는 행각도 위치나 규모면에서 변경이 생겼으므로 소요 부재의 수급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함녕전 행각의 경우는 정문인 光明門을 비롯하여 致中門, 凝春門, 宣陽門, 敦信門, 安昌門, 淸熙門, 鳳陽門 등 많은 夾門 있었다고 하나, 실행단계에서는 光明門과 鳳陽門 만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들의 좌우로 연결되는 행각의 규모나 구조면에서 상당한 변경이 가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적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당초 산정된 부재의 종류나 수량도 바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2. 工事財源

본 공사의 재원 중에서 목재의 조달과 관련하여 얼마 정도의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지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공사비의 지출을 기록한 『重建都監會計』에도 목물매입비의 항목을 별도로 기입하지 않았으며, 1904년 8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만을 회계연도로 잡았다. 또한 이 기록의 기초가 된 『匠役記綴』도 마찬가지여서 회계년도 이전까지의 1차 공사에 관한 내역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重建都監儀軌』의 工事財源은 오히려 전체 공사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2차 공사의 명확한 구분이나, 건물별 내역은 고찰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대체적인 재원의 성격은 엿볼 수 있다.

본 공사의 재원은 당시의 어려운 국가재정을 반영하듯이 度支部의 예비비로 충당한다거나 소요자재를 卜定하여 해당 지역의 結錢을 앞당겨서 이를 會減하는 등 挪用錢에 의존하고 있다.[13] 더구나 전년도의 結戶錢을 활용하기도

11) 수량증가 부재는 無頭樑2, 短椽盖板, 連窓引防, 雙窓引防, 分閣中防, 合中引, 同耳機, 立耳機, 短廳板, 假退楦單, 中竹·圓竹, 細箭廳板分閣, 斜箭交窓, 盲障子, 分閣暎窓, 連暎窓, 甲窓 등이고, 감소된 부재는 昌防24, 楹頭樑2, 柱頭31, 小累, 半間上引防, 楦作耳連窓壁楦, 短分閣壁楦, 假退楦單, 假退楦單法首, 長散里, 斑子隻, 長完子推障子, 滿箭短分閣暎窓 등이다. 삭제부재는 翼工45, 細箭廳板楦作耳, 樓細箭短分閣, 按具支只連暎窓, 樓短分閣暎窓, 二骨, 按具支只 등이고, 신입부재는 物翼工23, 厚板, 椽含, 荷葉, 滿箭短分閣 引防·壁楦, 崇閣·樓崇閣의 多案·小案, 連窓, 細箭短分閣, 洋板門, 紙壁障子, 連窓上紙壁障子, 上橫障子, 短分閣暎窓, 假退復道滿箭廳板分閣, 直交窓, 細箭廳板分閣 등이다.

12) 추가부재는 雙窓上引防, 從里, 交窓壁楦, 門引防, 門中防, 門壁楦, 帶木, 穴屯太, 板壁板, 散子, 椽含, 楦單, 長散里, 長廳板, 斑子, 滿箭廳板分閣, 樓門, 壁欌門, 分閣暎窓, 連暎窓, 甲窓 등이다. 수량증가부재는 平柱2, 長椽, 平交坮, 樓長散里, 同發里, 長散里, 架上木, 廳板分閣, 直交窓, 오리판문 등이고, 삭감부재는 高柱2, 道里2, 間半樑2, 短椽48, 朴空4, 散子板, 木只椽, 遠音, 雙窓引防·壁楦, 間半引·中防, 分閣連窓壁楦, 小雙窓壁楦, 間半同耳機, 長廳板, 龍脂板, 間半推障子壁楦, 中衿木 등이다. 삭제부재는 半間耳機, 薄松, 細箭廳板楦作耳, 長暎窓, 小雙暎窓, 二骨, 上下竹이다

13) 金純一,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硏究, 東國大 박사논문,

하였으므로 일정한 예산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나용전이 빈번하게 활용된 만큼 목재의 매입에 들어간 금액과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전체 재원 중에서 목재의 조달과 관련한 자금은 木物買入費와 治鍊工役費, 運搬雇價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重建都監儀軌』의 財用條에는 內下錢과 度支部移來錢, 內藏司移來錢이라는 재원[14]과 그 지출항목으로서 郎廳, 別看役, 雇員, 庫直의 月銀式과, 諸色工匠 및 擔軍, 支架軍, 募軍 등의 匠料式으로 나누어 적었을 뿐 목물가를 비롯한 여타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重建都監會計』나 『匠役記綴』 등에서 부분적이나마 목물매입비나 치련공전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일 단면을 밝힐 수 있다.

우선 목물매입비는 목재를 사 들이는 데 쓰인 돈이다. 『重建都監儀軌』 照會條의 갑진 7월 초 8일 度支部에 내린 공문에는,

"本都監役處浩大物價高翔以已下 內帑錢與 度支移來錢難可竣工銀貨限五十萬元支出於 度支部以爲繼用事"

라 하여 각종 물자의 매입으로 50만원을 탁지부로 보내어 쓰도록 하였다. 이 금액 중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물매입비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목물의 매입형태를 살펴 보자. 예로서 추녀와 대들보, 서까래 등은 강원도와 전라도, 양주군 등지에서 작취 운송토록 하였는데[15] 정확한 물량과 상당 액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돈은 해당 지방의 結錢을 會減하는 나용전으로 대체하였다.

그 밖의 목재는 대부분 京江邊의 沙湖에서 들여 왔으므로 일단은 목재매입비로 책정된 금액 중에서 일정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목재매입비 항목에서 엄정한 지출과 회계가 이루어졌는지 자신할 수 없고,[16] 結錢 挪用을 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내하전과 결전의 명확한 구분없이 시급한 상황에 따라서 임시변통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나용전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外道의 목재 卜定에 대해서 살펴 보자.

1904년 7월 이전의 상황으로서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條 갑진 3월 6일자에 楊州郡에 支乃木 소용의 眞木을 長 三把 圓徑 五寸으로 200개를,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양주군에 擔機 소용의 檜木 50개를 작취 운납토록 지시하였다. 이 목재들은 기계설치나 운반기구 제작용으로, 『重建都監儀軌』 報告條 갑진 5월 6일자에, 양주군에서 회목 51개와 진목 200개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앞서 3월 5일에 기계설치용 물자를 품의했으므로 이는 그 일부이거나 이후의 중화전 공사 등에 쓸 기계목이라 생각된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成冊하여 보고한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정확한 내역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重建都監儀軌』 訓令條 갑진 7월 27일자를 보자. 여기에는 중화전 공사에 쓸 大樑 4개와 春舌 6개를 강원관찰부로 하여금 작취 운납토록 하는데, 都監에서는 營繕司 委員 朴啓弘과 使喚旗手 1명을 파견한다고 하였다. 작업은 부근지의 목상으로 하여금 거행토록 하고, 비용은 목재 소재지의 해당 군 公錢 중에서 지불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1983년, p. 34의 주) 81 참고

14) 『重建都監儀軌』 財用條에 重建都監 재원에 대해서 "內下錢 930,000兩, 度支部移來錢 7,022,764兩 4錢 內 4,108,764兩 4錢 內藏司 以上 合錢 7,952,764兩 4錢"라 하였다. 예정대로 이 금액이 조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씩 조달되었으며, 어디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904년 8월부터 1906년 12월까지의 『重建都監會計』을 총괄하면 '度支部移來錢 총액 1,400,000兩, 內下錢 총액 430,000兩, 內藏司移來錢 총액 1,000,000兩'으로 집계된다.

15)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照會 갑진 8월 15일 內藏院條, 訓令 갑진 7월 27일 江原觀察府條, 동 9월 초10일 全羅南北觀察府條, 동 9월 22일 楊州郡條, 동 10월 17일 江陵郡蔚珠郡 平海郡條, 을사 2월 24일 東萊郡條 등 참고

16) 『重建都監會計』 甲辰 12月朔 會計條에 "昭寧園所在中和殿所用春舌八介斫伐時匠募雇價合錢六百十三兩六錢印"이란 지출내역이 있으므로 당초 강원도 등에 卜定된 長大材가 제대로 조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갑진 10월 17일에 강릉군, 울진군, 평해군에 도감 牌將 張元俊을 파견하여 재차 이 물량을 납송토록 하므로 최초의 작벌지시로부터 석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다시 報告條의 갑진 11월 초 1일자 울진군수의 보고에는, 公山과 私養山을 가리지 않고 찾았으나, 당초 획정된 재목감을 얻지 못했다고 한 것에서 長大材의 구득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당 군의 공전이 얼마 정도가 나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목재의 구입, 작벌, 운송에 드는 비용을 지방의 공전으로 대납토록 한 것은 종전의 연례적인 常貢이나 別貢과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 자금의 출처는 지방공전이지만 어쨌든 국고에 귀속될 돈이며, 해당 군으로서는 이를 선납하고 차후 이를 공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는 민간목상들로부터 매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목상으로 하여금 작벌과 운송까지 맡도록 한 것[17]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訓令條 갑진 9월 10일에는 전라도 관찰부에도 대량과 추녀를 작취 운납토록 하여, 영선사 위원 박계홍의 지휘 하에 작업토록 하였다. 정확한 주수나 나용전의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 卜定된 紙物에 대한 結錢挪用이 『重建都監會計』에 나타나 있어서 그 일단을 알 수 있다[18].

그러나 이 밖의 결전 나용에 의한 자재의 회계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한층 중요한 목재의 공전액수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목재는 卜定한다고 해도 적합한 물량이 없을 경우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산지에 따라서 목물가나 운반고가도 일정하지 않았던 만큼 액수의 획정도 쉽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획정하는 정확한 회계는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重建都監儀軌』 來照條 을사 2월 초 4일자에 盤石坊 大峴里 소재 松木 20주를 警務廳으로 하여금 작벌토록 하였다. 照會條 갑진 12월 3일자에 機械用 步板으로 內藏院의 鷺梁津 소재 步板 5백립을 轉用하고 竣役 후 還送한 예가 있다. 또한 照會條 을사 3월 16일자에 警務廳으로 보낸 공문과 같이 光熙門 내 七松亭 소재의 中松木 70주를 작취한 경우와, 『重建都監儀軌』에 기록되지 않지만, 西山, 外南山, 內南山, 駱山 등의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작벌해 쓰기도 하고, 北闕, 東闕 등의 舊材를 仍用한 경우[19]도 있었다. 서까래도 『重建都監儀軌』 訓令條 갑진 9월 22일자에 선자연과 대연 250개를 양주군 長興面의 金孫用 守護 李兵使의 산록에서 시가에 맞추어 작취 운납토록 하였다. 그 밖에 정확한 재목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을사 2월 24일자에는 동래군 범어산성으로 監官 崔佰淵과 林英春을 보내어서 재목을 작취 운납토록 하였다. 遠地까지 내려 보내는 것을 보아 長大材임은 틀림없다.

한편 중건도감회계에는 이러한 지방 결전의 나용과 사호로부터의 매입이 아닌 인근 산지나 公家로부터 들여 오는 경우에 運搬雇價, 治鍊工錢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木物看儉次 파견된 목수들의 路費와 留費 등을 지급한[20]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액 중에서 地方結錢으로 挪用된 것과 度支部 移來錢이나 內下錢 등으로 마련된 것을 명료히 구분하여 출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엄청난 목재가 소요됨에 따른 구득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반입처나 물량, 반입시기 등에서 변동이 심했던 것이 명확한 회계를 불가능하게 했던 원인이라 생각된다.

3. 豫算의 算出

3-1. 豫算明細書의 作成

17)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7月27日 江原觀察部條, "中和殿重建所用大樑四箇春舌六箇道內所在可合者斫伐取用…斫伐輸運等節使附近地木商專管擧行…"

18) 卜定內容은 『慶運宮重建都監儀軌』 報告 甲辰 8月 16日條, 照會 甲辰 4月 20日條를, 會計內容은 『重建都監會計』 甲辰 11月 會計條, "全羅北道卜定大角牡一百張每張價五十二兩小角牡一百張每張價三十四兩合錢九千二百二十六兩印" 참고

19) 『重建都監會計』 甲辰 11月朔 會計~光武 10年 5月朔 會計 참고

20) 『重建都監會計』 甲辰11月朔, 12月朔 會計條 등 참고

본 공사에서는 중화전 등 5개 건물의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종의 견적서로서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와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등을 작성하였다.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에는 중화전 20칸, 중화전 행각 92칸, 중화문 6칸 등 세 건의 견적이,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에는 함녕전 40칸, 함녕전 행각 70칸 반 등 두 건의 견적이 각각 실려 있다. 경운궁의 두 중심시설인 중화전과 함녕전을 비롯한, 그 부속행각과 三門에 대한 예산서이다. 유독 5개 건물에 대해서만 이를 기록한 것도 가장 많은 물량과 공역이 투입되는 주요공사였기 때문이다.

예산서는 당연히 공사전에 작성되는데, 함께 중건된 다른 殿閣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런 기록은 공사 후에는 의궤라는 형태로 정리된 후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계속 보존되어 왔다.[21] 또한 표지에는 司稅局印章이 있으며,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과 합철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예산명세서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궁궐을 비롯한 대규모 관영건축공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공사범위와 규모, 소요자재와 인력의 수급, 재정의 운용 등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후 작성되는 의궤에는 대개 공사전후의 내용이 크게 압축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인 윤곽만을 그려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이나, 자재의 수급상황, 예산집행 등의 내역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는 계획단계의 공사비 산출근거로서 이러한 예산명세서를 기록하고, 또한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은 공사집행의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목재를 비롯한 각종 자재의 소요 물량과 관련 工役에 대한 정확하고 엄정한 산출자료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을 것이다. 이는 자재와 공역의 조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생길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을 없앰으로써 예산의 절약뿐 아니라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본다면 이 자료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중화전 등의 예산명세서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공사착공 전에 작성되었음은 분명하다.[22] 이 기록 중의 중화전 행각은 92칸인데 반하여, 의궤 품목조 갑진 10월 4일자에 중화전 행각, 중화문, 함녕전 행각 등 소용의 재목, 석물, 잡물 등의 수입을 품의하면서, 중화전 행각의 규모를 실행된 규모인 2間通 108間과 間半通 27間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중화전 행각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한다. 중화문 등 나머지 4개 건물도 표-1과 같이 예산과 실입간 규모나 부재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 문서는 공종별로 작성되어 있다. 건물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초공사, 목공사, 석공사, 니장공사, 개와공사, 철물공사, 가칠공사, 단청공사, 도배공사 등의 순서로 구성되고, 각 공사별 자재비, 운반비, 인건비를 기록한다. 이러한 분류는 『重建都監會計』를 비롯한 여러 기록들[23]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체제로 작성된다. 즉 5개 건물별로 소요될 부재별 수량을 산정한 후, 이를 變製[24]할 原材別 수량에 대한 단가를 책정함으로써 전체 목재매입비를 산출하였다. 또 각종 原材의 매입비, 부재로 변제하는 治鍊工役費, 이를 役所로 운반하는 雇價, 治鍊部材를 精鍊 또는 가공·조립하는 각종 工匠의 入排工役費 등을 함께 산정하였다.

이처럼 목물매입비에다 治鍊工錢과 운송가

21) 예산명세서의 표지에 기록된 보존 만기년한은 융희 1년(1907)이다.

22) 문서 일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어서 원본은 아닌 것 같다. 또한 표지에 司稅局印章이 있다거나,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과 합철되어 있어서 원본이 연체공사비 지불근거를 목적으로 移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3) 『慶運宮重建都監儀軌』, 『慶運宮重建役費請求書』, 『德壽宮重建都監上下記』,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 등

24) 배희한 구술,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년, p. 69. 쓰일 나무의 종류와 크기를 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등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것은 당시의 목재시장의 사정과 관련된다. 즉 단순히 원재의 매매에 그치지 않고 치련공역과 운송을 함께 겸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려던 목재상들의 업태를 감안하면, 작벌과 운송, 치련공역까지도 목재의 매매행위에 포함시켜[25] 볼 수 있다.

예산명세서는 예산책정을 위한 것으로서 실입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당시로서 부재의 변제과정에서 소요되는 원재의 수량 산정과 매입비용, 그리고 이를 치련하고 운반하는 등의 공전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은 건축생산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된다. 목재의 물량산정과 예산산출 등이 무계획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산출방식은 당시로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산정 방식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重建都監會計』나 『匠役記綴』에서 목재매입비나 치련공전, 운반고가 등은 각 단가별로 산출된 액수에 따라서 지출된다. 반입처가 바뀜에 따라서 원재도 바뀌거나 단가가 변하기도 하지만, 공전의 경우는 豫算明細書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예산명세서와 달리 건물별 목재량이나, 원재별 단가, 부재별 공전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서 실행단계에서 목물가에 적용한 특정의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다.

3-2. 木物豫算의 算出

중화전 등에 소요되는 목재는 대부분 치목되지 않은 원목의 매입과 이를 부재로 치련하는 공역 및 운송에 대해서도 단가가 책정된다. 이러한 단가는 당시의 현물시장, 즉 경강변 목재시장 등에서 거래되던 대량 등 각종 원재별 치수와 공역, 운송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여러 곳으로부터 목물이 반입되지만, 당시의 목물 주거래처였던 沙湖 비축의 私商 목물의 성격이 예산산출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26]

이러한 목재는 大樑을 비롯하여 民大樑, 別不等, 不等, 長椽, 短椽, 扇子椽, 馬足椽, 皮頭里, 體木, 大條里, 小條理, 中防, 引防, 上引防, 長散里, 中瓦椽含, 長廳板, 龍脂板, 薄松, 栢子板, 眞長木, 小椽 등 모두 23종이 상정된다. 이 중 재목은 대량 1,585개를 포함하여 도합 9,293개이고, 角材는 823개, 板材는 962립, 雜木은 2,410개, 기타 中瓦椽含 1,500骨, 椳木 600同, 각종 기계용재 등이 있다. 그외 함녕전과 행각 소용의 각종 창호 1,541隻이 산정된다.

표-2. 건물별 원재 수량 및 비용 산출 내역

구 분			건물별 원재 수량(개)						금액(냥)
재목명		단가(냥)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	함녕전	함녕전 행각	합계	
대량		600	6					6	3,600
		350	300					300	105,000
		300	300		12			312	93,600
		280		121	23			144	40,320
		250				71	64	135	33,750
		220	388	200	100			688	151,360
민대량		86	118	450	289	469	25	1,351	116,186
부등	별부등	50				36	545	581	29,050
	부등	40					63	63	2,520
체목		24				50		50	1,200
피두리		50	550					550	27,500
서까래		14. ~ 63.5	544	1,999	258	752	1,560	5,113	129,722
합계	수량(개)		2,206	2,770	682	1,378	2,257	9,293	
	금액(냥)		341,980	160,148	70,137	82,073	79,470		733,808

표-2는 이 가운데서 대조리목 등 치련을 거친 중간부재를 제외한 원재의 수량과 비용산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대량의 단가는 6종으로서, 치수도 다양하다. 대량은 중화전에서만 상하층 唐家 소용의 30개를 포함한 994개로 산정되어 전체 소요의 절반을 훨씬 상회한다. 그 밖에 중화문 135개, 중화전 행각 321개, 함녕전 71개, 함녕전 행각 64개로, 규모

25) 李權英 外,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집, 1998. 3. p.24

26) 南署 茶洞의 목상 韓得珠가 납품한 木物價 내역을 기록한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서 단가는 예산명세서와 일치한다. 예로서 大樑은 규격에 따라 각각 120원, 70원, 60원, 56원, 44원이다. 이는 5냥/원이므로 환산하면 예산명세서의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에서 산정된 600냥, 350냥, 300냥, 280냥, 220냥과 정확히 일치한다.

가 클수록 많은 대량이 산정된다. 가장 큰 치수인 만큼 구조용을 비롯하여 수장용, 공포용, 창호용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특히 단가 600냥의 대량은 중화전에서 대들보와 추녀용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대량의 총액은 427,630냥으로서 전체 원재매입비 733,808냥의 약 60%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이다. 대량의 조달 여부가 공사진척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서까래재의 단가도 14.6~63.5냥의 13종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책정된다. 이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지붕면의 골격을 이루는 서까래의 치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건물 내에서 모든 서까래의 굵기는 같고, 같은 종류의 서까래 길이는 같게 산정된다. 즉 장연과 단연을 기본으로, 팔작지붕의 중화전, 중화문, 함녕전에서는 선자연이 136개, 112개, 120개씩 산정된다. 중화전 행각에서 장연과 단연이 각각 980개씩, 함녕전 행각은 764개와 796개씩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칸수가 100여칸에 달하기 때문이며, 중화전 행각의 마족연은 꺾임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하였다.

서까래재는 전체 원재가의 18%에 달하는 129,722냥으로 산정되며, 이 가운데서 장연이 절반을 차지하며, 단연, 선자연 순으로 많다. 대량 다음으로 많은 액수인 것은 소요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곧고 긴 일정 굵기가 요구되는 만큼 다른 재목으로 대체가 힘들므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민대량이나 부등목, 체목, 피두리 등은 단일 단가로 책정되며, 대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액수이다. 단가가 낮은 만큼 그 치수도 작고, 따라서 구조재 중에서도 작은 치수라든지, 여타 수장재나 공포재에 쓰여지므로 중화전보다 작은 건물에서 오히려 물량이 많게 산정된다.

민대량의 단가는 86냥으로, 도합 116,186냥에 달하며, 전체 원재가의 16%로서 서까래재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 소규모 건물에서는 구조재 뿐 아니라 수장재나 공포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함녕전이나 중화문, 중화전행각에는 대량보다 훨씬 많은 450개, 289개, 469개씩 산정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창방이나 평방 등 부구조재로 산정하였다.

별부등과 부등은 단가가 한층 낮은데, 함녕전과 함녕전 행각의 구조재나 수장재로서 각각 36개, 608개가 잡혀 있다. 또한 체목은 함녕전에만 단가 24냥의 50개가 산정되며, 마루귀틀재로 쓰는 것으로 하였다. 피두리는 중화전에만 단가 50냥의 550개가 잡혀 있는 정도로서, 葡萄門分閣과 상하층 唐家의 제작용으로 잡았다. 금액도 부등목류가 전체 원재가의 4%에 해당하는 31,570냥이며, 피두리는 27,500냥, 체목은 1,200냥에 불과하다.

표-3. 건물별 부재, 잡목, 창호 비용 산출내역

구분	단가(냥)	단위	수량					금액(냥)
			중화전 행각	중화전	함령전	함령전 행각	합계	
중방	33	개	172				196	5,844
	7					24		
인방	33	"	172				172	5,676
상인방	33	"	76				76	2,508
장산리	12	"	456				456	5,472
대조리	3.5	"	144		28	54	226	791
소조리	2	"			190	272	462	924
박송	3.5	립	216			32	248	868
용지판	30	"	54				54	1,620
장청판	13.5	"	660				660	8,910
백자판	100	"		5			5	500
중깃소연	1	개	446				590	662
	1.5					144		
진장목	4	"	720			800	1,520	6,080
중와연함	0.2	골	1,500				1,500	300
잡장목	4	개			300		300	1,200
외목	1	同			600		600	600
각양창호		틀	596		386	559	1,541	36,744
금 액(냥)			47,902	500	15,366	14,932		41,955

이밖에 大條里, 小條理, 長散里, 中防, 引防, 上引防 등의 小角材라든지, 薄松, 長廳板, 龍脂板, 栢子板 등의 板材, 椽含 등 元材를 1차 치련한 중간 부재들과, 기타 잡용재로 小椽, 雜杖木, 棍木, 機械所用木 등도 일부 산입된다.

표-3에서 보듯이 중화전 상하층 唐家 소용 백자판을 제외한 이들 중간치련 부재는 함녕전과 행각에만 산입되었다. 이 건물들은 규모가

작고 단순한 칸의 반복 또는 주거용인 것과 관련된다. 즉 규모가 큰 중화전이나 중화문은 부재 또한 민간의 수요가 거의 없는 장대재를 요구하므로 직접 제작해 쓰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소규모 건물의 경우는 수장용으로 쓸 작은 치수의 판각재나 잡용재가 많이 요구되므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목물을 이용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화전 행각에서는 단가 125냥의 八隅廣窓 16짝을 포함한 총 11종, 596짝으로 13,154냥을, 함녕전은 단가 252냥의 完子交窓 3짝 등 총 20종, 386짝에 대해 13,088냥, 그리고 함녕전 행각은 단가 60냥의 直交窓 12짝 등 총 16종, 559짝으로 10,502냥을 산정하였다. 세 건물의 총 창호매입비는 36,744냥으로 해당 건물의 목물매입 총액의 8%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원재의 종류나 수량이 상당 부분 바뀌는 것처럼 창호도 종류나 수량도 바뀌며, 이에 따라서 원재를 사용하여 역소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27]

이와 같이 각종 창호의 일체를 당시 목물시장에서 완제품으로 구매코자 한 계획[28]이 직접 제작으로 변경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산명세서가 당시의 목재시장의 사정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 만큼 창호의 외주 계획은 당시의 목물유통과 치련공역의 규모나 활성화의 수준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목물매입예산이 총공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자. 표-4는 이와 관련하여 건물별 내역을 정리, 비교한 것이다.

먼저 중화전의 목물가는 342,480냥으로 5개 건물 목물가 전체 금액의 42%에 달한다. 규모가 큰 만큼 가장 높은 단가의 대량을 대거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27) 『慶運宮重建都監儀軌』나 『匠役記綴』에는 이러한 창호제작과 제품의 운반에 관한 내용들이 빈번히 확인된다.
28) 예산명세서의 공종별 분류에서 편제상 중화전과 중화문의 창호를 목공사에 포함시키고, 중화전 행각, 함녕전, 함녕전 행각은 창호공사의 목물과 외주 창호가를 구별하고 있으나, 편의상 건물별 목물가 대비를 위해서 합산하였다.

표-4. 건물별 총 공사비와 각 목물가 대비

구 분	목물매입비 예산(냥)				총공사예산(냥)
	原材	部材	窓戶	합계	
중화전	341,980	500		342,480	1,695,317
중화전 행각	160,148	34,748	13,154	208,049	627,383
중화문	70,137			70,137	376,452
함령전	82,073	2,948	13,088	98,108	520,493
함령전 행각	79,470	4,429	10,502	94,401	361,702
합계(냥)	733,808	42625	36,744	813,175	3,581,347

중화전 행각의 경우는 총 208,049.5냥으로 전체 목물가의 26%를 차지한다. 칸수가 많을 뿐 아니라 間架의 치수가 비교적 큰 까닭에 다른 건물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산정된 반면, 중화문은 가장 적은 9%에 불과하다. 규모도 작고, 수장재의 사용이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물 매입예산이 총공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물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중화전 행각은 33%로서 가장 높고, 나머지 건물은 20% 전후를 차지한다. 특히 중화전 행각에서 가장 높게 산정되는 것은 다른 건물에 비해 중간부재와 창호 매입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5개 건물 전체로 평균해 볼 때는 대략 23%에 달하는데, 이는 석재, 기와, 철물 등 여타의 각종 자재의 매입과 공역가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중이 아닐 수 없다. 즉 소요 목물을 여하히 구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당시대로서 건축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관건이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3-3. 工役費의 算出

예산명세서에는 앞서의 목물 매입예산과 함께 5개 건물별로 각종 소요부재를 변제할 원재들을 치련하는 공역비에 대해도 산출하였다. 각 공역별로 단가를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전의 총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를 보면, 건물별로 소요되는 수많은 부재의 치련공역은 크게 初鍊과 精鍊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初鍊은 髹鉅匠 頭折工役, 船匠 初治鍊工役, 岐鉅匠 또는 條里匠, 引鉅匠 作骨工役

에 의해 원재가 중간부재로 가공되기까지의 단계에 해당된다. 반면에 精鍊은 초련된 중간부재를 初再治鍊 入排木手, 彫刻匠, 木鞋匠 등에 의해서 최종의 조립부재로 가공하는 공역과 함께 각종 부재들을 결구하는 조립공정을 포함하였다.

초련의 하나인 頭折 공역은 원재의 양쪽 끝마구리를 소요길이의 재목 만을 남기고 절단하는 작업이며, 初治鍊 공역은 원재를 재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다듬어서 요구되는 단면형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作骨 공역은 재목을 켜어 板角材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여기에는 歧鉅匠 공역, 引鉅匠 공역, 條里匠 공역으로 세분되기도 한다[29].

표-5. 원재의 초련공역별 단가 책정 내역

구분	목재명	頭折 (냥/척)	初治鍊(냥/척)		作骨(냥/곱)		
			材木	片木	歧鉅匠	條里匠	引鉅匠
중화전	대량	1	1	0.7	4.5	1	
	민대량	0.5					1.2
	서까래	0.7	0.9				
	피두리					0.8	
중화문	대량	누락	1		3	1	
	민대량		0.7				
	서까래	0.7	0.9				
중화전 행각	대량, 민대량	0.9	0.7		3	1	
	서까래	0.5	0.6				
함녕전	대량, 민대량	0.9	0.7		3	1	
	별부등	0.7		0.4	0.7		
	체목	0.5		0.4	0.7		
	서까래	0.5	0.6				
함녕전 행각	대량, 민대량	0.9	0.5	0.7	3	1	
	부등목	0.7		0.4	2	0.6	4
	서까래	0.3	0.3				

이러한 공역의 단가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에서 初鍊에 해당하는 頭折, 初治鍊, 作骨에 대해서 각기 折, 尺, 骨 당 단가를 책정하였다. 초련에 관한 한 3종의 작업형태별 내지는 작업량이라는 개념의 산출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都給 공전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역의 종류가 같을 지라도 재목의 길이나 두께의 차이에 따른 소요 工力의 정도에 따라서 단가가 높게, 또는 낮게도 책정될 수도 있다. 즉 초련공전은 목물가와 마찬가지로 대상 재목의 치수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명칭의 원재라도 쓰여질 건물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鬥鉅匠의 折 당 頭折 공전은 대개 대량 1냥, 민대량 9전, 부등목 7전, 체목 5전의 순이다. 함녕전과 행각에서는 대량이 비교적 작고 소량이어서 민대량에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하기도 한다. 재목의 단면크기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다.

船匠의 初治鍊 공전은 재목의 길이에 따라서 尺 당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재목의 단면크기와 단면형태에 의한 작업의 工力 정도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 개의 원재로 한 개의 부재가 만들어지는 구조재나 서까래재의 초치련된 단면은 주로 원형이다. 이에 비해서 초치련된 편목은 기거장에 의해서 다시 작골되어 工踏板이나 厚正板으로 되므로 단면은 方形이 된다. 표-5에서 보듯이 원형 단면으로 초치련하는 것이 방형의 경우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데, 이는 그만큼 원형 단면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단면의 굵기가 클수록 당연히 단가가 높고, 또한 단면형태가 둥근 재목이 方形의 片木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다. 중화전에서 대량의 초치련 재목이 편목에 비해서 높은 단가가 책정된 다든지, 여타 건물에서도 단면이 작은 서까래가 다른 원재보다 초치련 공전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도 원형단면의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작골공전은 재목을 길이 방향으로 켜는 일이므로 재목의 단면 크기와 길이의 대소에 따른 골당 단가로 책정된다. 작골은 편목을 판재로 작골하는 경우에 기거장 작골공전이, 작골된 판재를 각재로 더욱 잘게 작골하는 경우는 조

29) 歧鉅匠의 工役은 片木을 工踏板이나 厚正板 등의 厚板材로 켜는 작업이다. 引鉅匠의 工役은 初治鍊되지 않고 죽이 있는 元材를 판재로 作骨하는 작업이다. 條里匠의 工役은 工踏板이나 厚正板 등의 厚板材를 角材로 再作骨하는 작업이다.

리장 작골공전이 책정된다.

기거장의 작골공전이 조리장의 작골공전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되므로 역시 단면이 크고 길이가 길수록 작골공전이 높게 책정됨을 알 수 있다. 기거장은 편목을 廣이 넓은 후판재로 작골하고, 조리장은 이 후판재를 각재로 켜는 까닭이다. 중화전을 예로서 기거장 작골공전은 큰 대량 편목을 공답판으로 작골하는 데 4.5냥, 그밖의 대량과 민대량 편목을 후정판으로 작골하는 데 3냥, 가장 단면이 작은 부등목 편목을 후정판으로 작골하는 데 2냥이 책정된다.[30]

초련공역별 단가를 비교하면, 작골이 가장 높고 초치련과 양두절은 비슷하게 책정되며, 작골 중에서는 引鉅匠, 歧鉅匠, 條里匠의 순으로 공전단가가 높게 책정된다. 이렇게 작골공전이 높게 책정된 것은 골당 단가가 재목의 全長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서, 초치련은 그 일부인 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거장이나 기거장의 작골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작업구성이 2인 1조로 이루어지는[31] 만큼 공력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입배공전은 초련공전과 달리 공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工匠 1명당 매일 6냥으로 산정한다. 즉, 초련공전이 척, 절, 골을 기준으로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서 공전을 지급받는 도급 방식으로 산정되는 데 반하여, 입배공전은 공장의 작업량에 상관없이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입배공전은 단순히 반복되는 부재치련과 달리 현장으로 반입된 초련 중간재를 최종 부재로 가공하거나 재차 수정하며, 이를 조립·결구하는 복잡한 공역이므로 부재의 규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라 생각된다.

입배목수를 비롯한 정련공장의 소요인원은 건물 규모나 부재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산출된다. 건물규모의 예로서, 중화전 행각의 경우 入排木手·彫刻匠·木鞋匠의 인원수를 1칸당 90명을 기준으로 총 8,280명이 산정되는데, 이를 1인당 공전으로 보면 역시 일당 6냥씩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92칸의 규모로서 매칸이 동일하게 반복되므로 칸당 인원수의 산정은 비교적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중화전이나 함령전 등 규모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으므로 당시로서 축적된 경험치도 적용했을 것이다.[32] 다만 여기에다 주어진 공기나 창호 등의 외주여부 등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입배공전이 전적으로 일급으로만 책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도급전의 성격도 가미되고 있다. 즉 중화전 행각에서 입배공장인 목수, 조각장, 목혜장의 연인원수와 노임총액을 예산하면서 매칸당 90명을 기준으로 소요인원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예산명세서에서는 여타 건물의 입배공장의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전체를 살피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匠役記綴』의 실제 집행된 경우로서 紅園內堂 24칸에 대해 治鍊人排木手를 매칸당 100명씩으로 산정하여 전체 건물에 대한 연인원과 工錢 액수를 기록하고 있으며,[33] 함녕전과 함녕전 행각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칸당 각각 350명과 40명씩의 입배공전을 지급하였다.[34] 중화전의 경우도 예산명세서에

30) 4.5냥은 길이 20尺 정도의 大樑片木을 作骨하는 경우이다. 그외 大樑片木 및 民大樑片木을 厚正板으로 作骨하는 것은 3냥이 책정된다. 공전책정에서 대량편목과 민대량편목의 수량 및 길이를 합산하고 있어서 해당 편목의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으나, 평균 길이는 대략 15척이다. 이 경우 공전책정은 민대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합산과정에서 대량편목에 비해서 민대량편목의 수량은 아주 많고, 이에 해당하는 대량의 개당단가가 4냥 5전의 작골공전이 책정된 경우의 대량단가와 상당부분 같기 때문이다.

31) 배희한 구술, 앞의 책, p. 38

32) 金純一, 앞의 논문, pp. 16~20, 본 공사 전인 1899~1904년간 永禧殿, 濬源殿 제1실, 眞殿重建, 中和殿營建 등이 이루어졌고, 각 都監 요원들이 공사에 그대로 참여하였다. 본 공사의 도감도 직전의 중화전 인력이 그대로 참여하고, 대부분의 건물이 화재전의 규모와 위치를 따르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특히 『匠役記綴』을사 4월 26일조의 중화전 입배공전의 지출내용은 예산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33) 『匠役記綴』 권18 참고

34) 각 건물의 예산명세서에서 배정된 입배공장의 연인원을 책정된 정련공전 6냥으로 나누면 각 건물의 칸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매칸당 입배공장의 수는 예산과 실행이 일치한다.

서 책정된 목수, 조각장, 목혜장 각각의 입배공전은 『匠役記綴』 乙巳 4월 26일조의 실제 집행된 공전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입배공전은 일급으로 책정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종의 도급전이라 할 수 있는 칸당 공전으로 책정·지급되었던 것이다.

창호의 경우는 중화전의 葡萄二層廳板分閤 제작을 위해서 창호장인 목수와 조각장에 대해서 매짝 당 각각 15명, 25명씩으로 공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35] 그러나 여타 건물의 경우는 대개 작은 치수의 일반 창호로서, 공장의 구분없이 창호의 종류에 따라서만 매짝당 공전을 정하고 있다. 즉 細箭廳板分閤은 48냥, 完子紙廳板分閤은 72냥, 斜箭交窓은 100냥, 盲障子는 13냥 등으로 매짝공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호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工力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이 역시 도급공전으로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본 공사에서 초련공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치련공역이 이러한 도급방식으로 산출되는 점은 크게 주목된다고 하겠다. 도급공전이란 공기를 단축할 목적으로 어떤 공사에 소입될 모든 비용을 미리 산정해 놓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도맡아 처리토록 할 목적에서 취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당시로서 시급한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내지는 공사 구획별 책임 할당량을 도급줌으로써 공사일정을 앞당기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창호 등의 외주 제작을 계획했던 점도 당시로서 목재시장에서의 치련공역과 관련한 민간공장들의 활동이 상당한 수준으로서 이들에게 전적으로 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산명세서의 건물별 치련공역의 공전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6와 같이 정리된다.

먼저 초련 공역별 공전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초치련 58%, 작골 34%, 두절 8%의 순으로 나타난다. 초치련과 작골공전의 비중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부재별 치련공역의 특성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예로서 초치련 공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은 작골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재나 서까래재의 초치련 공역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련공전에 있어서 초치련의 비중은 중화전 행각이 76%로 가장 높고, 함녕전 행각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외 중화문과 함녕전은 약 60%, 중화전은 약 50%이다. 중화전 행각의 초치련 비중이 높은 것은, 작골공역이 크게 줄어든 대신에 여타 공역이 많이 들고, 재목의 크기에 비해서 초치련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서까래의 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함녕전 행각은 가장 낮은데, 이는 양두절이나 초치련 공역을 거치지 않는 보판용 별부등의 작골공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6. 주요 건물의 공역별 치련공전 총액내역(단위:냥)

구분	頭折	初治鍊	作骨	入排(精鍊)	합계
중화전	2,795.6	24,783.6	20,604.4	214,248	262,431.6
중화문	361.2	8,712	5,157	47,421	61,651.2
중화전 행각	3,386.8	18,361.8	2,250	49,680	73,678.6
함녕전	1,752.4	10,364.2	5,120.5	84,000	101,237.1
함녕전 행각	1,948.4	6,791.7	7,233.8	16,920	32,893.9
합계	10,244.4	69,013.2	40,365.7	412,269	498,998.5

한편 정련 공전이 전체 치련공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함녕전이 82%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경우가 함녕전 행각으로서 52%이며, 여타 건물에서는 70~80%를 차지한다. 함녕전이 가장 높게 산정되는 것은 매칸당 입배공장의 수를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36] 함녕전에 입배공장의 수를 가장 많이 배정한 것은 이 건물의 용도가 침전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내장 및 수장공역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5) 『匠役記綴』 권18 참고

36) 매칸당 입배공장의 수는 함녕전 350명, 중화전과 중화전 행각 90명, 함녕전 행각 40명으로 산정되었다.

함녕전 행각의 정련공전 비중이 가장 낮은 것도 단순한 구조로 된 행각일 뿐 아니라, 같은 행각이라도 중화전 행각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단순한 무익공식 건물인 까닭이다.

건물별 전체 치련공전을 보면, 중화전이 262,431.6냥, 중화문 61,651.2냥, 중화전 행각 73,678.6냥, 함녕전 101,237.1냥, 그리고 함녕전 행각 32,893.9냥이다. 공전으로는 중화전, 함녕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 함녕전 행각의 순으로 비중이 큰데, 이는 건물별 입배공장의 소요 인원수와 일치한다. 중화전이 함녕전의 2.5배이며, 가장 적은 함녕전 행각의 8배 정도가 되는데, 이는 건물의 규모가 큰 만큼 부재수도 많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많은 공장이 요구되므로 공전 액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다만 중화전이나 중화문이 칸수가 많은 함녕전이나 행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련공전의 비중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앞서 공사규모에서 밝힌 바처럼 다포식 구조로서 상당히 많은 부재와 복잡한 결구작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건물의 창호는 현장 제작을 전제로 한데 반해서 여타 건물들은 외주를 통한 창호의 매입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창호의 제작에 따른 공전액수의 증가도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한편 목물 운송고가는 운반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車運雇價, 駄運雇價로 구분하고, 목물의 종류에 따라서 輛 또는 駄의 수를 달리 산정하였다. 車運木物은 대량, 민대량, 별부등, 부등, 누주, 체목, 서까래, 피두리, 해송, 벽련 등 체적이 큰 원재이며, 駄運木物은 소연, 소소연, 진장목, 상중인방, 장산리, 대소조리, 박송판, 장청판, 용지판, 중와연함, 산자 등 체적이 비교적 작은 雜木, 小板角材이다.

輛當 單價나 駄當 單價는 각각 4냥/輛, 2.4냥/駄로 모든 시설물에서 일정하며, 운송거리는 沙村里로부터 闕內까지를 운반거리로 잡았다.[37] 사촌리는 조선시대의 목재의 주된 공급처로서[38] 본 공사에서도 대부분의 목재가 이곳으로부터 반입되었다. 실제로는 여러 곳에서도 목재가 반입되었지만, 예산 산출단계에서는 일단 사촌리로부터 궐내로 반입하는 거리가 단가 책정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이 밖에 負持雇價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에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실행회계에는 彰義宮 치목소 등으로부터 창호짝 등을 등짐이나 지게로 운반한 것에 대해 負持雇價를 지불하고 있는데,[39] 이는 동궐과 같은 근거리의 목재를 반입한다든지, 또는 창호를 현장 제작함에 따라서 창의궁 창호소로부터 반입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 건물별 목물매입비와 치련공전, 운송비, 그리고 이를 합산한 목공사비와 총공사비를 대비해 보면 표-7과 같이 정리된다.

표-7. 목물 관련예산 산출 내역 (단위: 兩)

구분		중화전	중화문	중화전 행각	함령전	함령전 행각	합계
목공사비	목물매입비	342,480	70,137	208,050	98,109	94,401	813,177
	치련공전	262,432	61,651	73,679	101,237	32,894	531,893
	운송비	53,548	11,340	26,151	10,236	7,676	108,951
	소계	658,460	143,128	307,880	209,582	134,971	1,454,021
총공사비		1,695,317	376,452	627,384	520,493	361,702	3,581,348

5개 건물 전체로서 목공사비에 대한 목물매입비는 56%로서 절반을 넘으며, 치련공전이 37%, 운송고가가 7% 정도를 차지한다. 건물별 목물매입비와 치련공전의 비율은 중화전이 52%, 40%, 중화문은 49%, 43%, 함녕전은 47%, 48%로 각각 책정된다. 이에 반해서 중화전 행각과 함녕전 행각은 목물매입비가 67%, 70%씩으로 크게 상승하지만, 치련공전은 24%로 낮아진다. 복잡한 다포식의 중화전이나 중화문, 수장공사의 비중이 큰 함녕전에서는 목물매입비와 치련공전이 각각 40~50%를 차지하지만, 많은 칸수에도 단순한 구조의 행각에서는 목물매입비가 증가하는 대신 치련공전은

37) 실제 공사에서는 사촌리 뿐 아니라 창의궁 치목소를 비롯한 26개 이상의 지역에서 목물이 반입되므로, 거리에 따라서 운송수단과 고가는 달리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38) 李櫶英 외, 앞의 논문, pp. 11~13, 25 등 참고

39) 「重建都監會計」 甲辰九月朔會計의 "彰義宮治木所所來窓隻四負雇價二兩八錢"라는 내용으로부터 彰義宮治木所에서 重建所까지의 負持雇價는 7錢/隻임을 알 수 있다.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공종별 공사예산 책정내역을 비교해 보면 표-8과 같이 정리된다.

표-8, 각 건물의 공종별 예산책정 내역 (단위: 兩)

구분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	함녕전	함녕전 행각	합계
기초공사	30,076	9,888	4,866	26,897	13,664	85,391
목공사	658,460	307,879	143,128	209,582	142,445	1,461,494
석공사	329,625	170,075	163,105	135,246	83,950	882,001
니장공사	180,861	100,632	1,614	19,,696	66,552	369,355
가철공사	44,494	7,579	2,944	17,443	3,155	75,615
단청공사	13,613	9,841	4,032	9,767	5,204	42,457
도배공사	3,401	6,049		18,617	9,315	37,382
개와공사	147,408		39,289	57,733	32,511	276,941
철물공사	83,848	4,318	15,170	10,146	3,420	116,902
기타공사	203,531	11,123	2,304	15,366	1,486	233,630
합전	1,695,317	627,384	376,452	520,493	361,702	3,581,348

목공사를 비롯한 공종별 재료비, 운반비, 공전 등을 합산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총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비중은 목공사 41%, 석공사 25%이고, 그 다음은 니장공사 10%, 개와공사 8%[40], 철물공사 3% 등의 순이다. 목공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다만 중화문의 경우 석공사가 목공사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이는 內外의 鋪石, 御路, 御溝 등에 소요되는 각종 석물 관련 공전이 많이 산입되기 때문이다.

4. 豫算과 實入

4-1. 豫算의 變更

『重建都監儀軌』實入條의 물량은 예산명세서의 大樑 외에도 別大樑과 短大樑이 포함된다든지, 檜木, 椳木, 短吐, 椽木, 大椽, 次大椽, 貿大椽 등의 명칭이 보이고, 別中防, 修粧板, 厚正板과 같이 1차 재재된 판각재나 잡목 등 도합 47종이 기록된다. 또한 『重建都監儀軌』圖說條와 稟目條에도 부재 생산을 위한 원재별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화전의 원재는 6종보다 많은 11종이 기록된다. 즉 예산명세서에 없는 短大樑이나 別不等, 不等, 樓柱, 大椽, 短吐, 椳木 등으로서, 창호 제작용으로도 대량과 椳木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중화문의 경우도 대량을 비롯한 6종, 중화문 행각은 13종, 함녕전은 10종, 함녕전 행각은 14종 등 5개 건물 전체로는 도합 27종의 원재가 품의되었다.[41]

표-9는 예산명세서에 나타난 시설물별 일부 목재의 예산수량과, 실제 사용된 실입수량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9. 건물별 예산과 실입 목재량 대비 (단위: 개)

구분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		함녕전		함녕전 행각	
	예산	실입	예산	실입	예산	실입	예산	실입	예산	실입
대량	994	1,109	321	210	135	199	71	72	64	49
민대량	118	60	450	171	289	36	469	476	25	26
단대량		9								
별부등		7		930		18	36	43	545	480
부등		8		55		45			63	162
누주		262		530		66			200	
세목							50	50		
피두리	550	216								
별대연						3		352	100	
대연		28							60	1146
장연	180		980	1368	76		280		764	
단연	228		980	1368	70		352		796	
선자연	136				112		120	128	120	
마족연			39	39						
각양창호		82짝	772짝	457			387	583	569	479

5개 시설물 가운데 당초 계획한 대로 목재를 조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실입재목에서 그나마 당초의 산정 물량에 가장 근접한 경우는 함녕전이며,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은 다소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공사 전후의 규모 및 間架가 변경된 탓으로서, 중화전 행각의 경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사중 43칸이나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규모나 間架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실입목재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지는 것은 각 부재에 대한 해당 용재의 변화,

40) 예산명세서에는 중화전 행각의 개와공사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41) 實入條나 稟目條가 『豫算明細書』와 다른 것은 공사중 계획변경이나 수급사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유사 재목으로 대체하거나, 작은 부재는 長大材의 裁餘木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특히 창호는 완제품의 주문제작이 직접 제작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즉 부재의 규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목재의 수급사정이 원활치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42] 중화전 행각의 경우 규모가 훨씬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재목인 대량과 민대량의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代用材로서 별부등이나 부등, 누주 등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용재는 대량이나 민대량에 비해 규격이 훨씬 작기 때문에[43] 부분적으로는 건물의 칸수나 柱間, 처마 높이 등의 변경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공사 중의 몇번에 걸친 설계변경도 목재의 수급사정이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창호가 다양하게 배설되는 함녕전과 행각은 공통적으로 창호의 종류와 수량에 있어 예산과 실입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외주를 통해서 조달하려던 계획이 변경되고 창의궁 창호소로부터 전량을 직접 제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화문과 같이 협칸이 12척에서 13.5척으로 커지는 등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반입재목은 예산 산정치와 비교하면 대량은 약간 증가하는 데 비해서 민대량은 수량이 훨씬 감소한다. 이러한 부재의 차이는 규모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대체 용재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화문에서 기둥, 보, 도리, 창방, 평방 등의 구조용재로는 대량 105개가 소요될 뿐 나머지 대량과, 민대량 전량은 후정판, 장송판으로 1차 작판된 다음 작은 규격의 소요부재로 2차 가공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편 서까래의 경우 거의 모든 시설물에서 반입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화전과 중화문에서는 장연과 단연, 선자연 등의 반입물량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까래재는 다른 재목과의 호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재목으로 대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서까래재가 반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한 단연과 같은 작은 치수의 서까래재가 일부 대용되었을 가능성도 감안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누락된 것은 기록의 누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실제 납품물량을 기록한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서 중화전과 중화문의 서까래를 전량 목상 韓得珠가 납입하고 있기[44] 때문이다.

이상의 물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예산 산출치가 실입내역에 근접한다. 따라서 예산명세서상의 산출내용은 공사 실행에 중요한 근거로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건축생산사적으로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것이라 하겠다.

4-2. 稟議와 搬入

1904년 3월 5일의 始役에서 같은 해 7월 11일까지 약 4개월 간은 卽阼堂, 昔御堂, 景孝殿, 浚明堂, 咸有齋, 欽文閣 등 6개 棟의 소규모 건물의 開基, 定礎, 立柱, 上樑에 이르는 공정을 마치며, 修粧工事 및 丹靑, 假漆工事 등도 함께 진행되는 등 대체적인 완공을 본다.[45]

이 기간에는 곧 이어질 중화전과 함녕전 등의 주요 殿閣工事를 위한 준비작업보다는 즉조당 등 6개 건물의 공사에만 주력하고 있다. 우선 목공사를 위한 治木假家와 窓戶假家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治石假家 및 治爐假家도 함께 설치한다. 이와 함께 부재의 결구를 위한 機械와 개기 작업에 필요한 각종 기계의 설치도 이루어지며, 募軍의 임시거처를 위한 圈排, 艾幕을 설치한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즉시 목수를 비롯한 각종 工匠들의 물품을 稟議하고, 심지어 上樑文이나 假漆, 丹靑, 懸板, 香爐 등의 물품을 품의하여 즉조당 등의 창호공사나 내·외부의 수장공사를 연이어 진행하여 조기에 완공한다. 즉 치목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立柱가 이루

42) 장연, 단연, 선자연 등의 경우 중화전 행각에서만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타 건물은 거의 반입되지 않아서 代用된 것이 틀림없다. 실입된 서까래도 거의 대부분 목상 한득주가 납품한 것이다.

43) 개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최소대량 220냥, 민대량 86냥, 별부등 50냥, 부등 40냥, 누주 21냥 등이다.

44) 4-3절에서 다루게 될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 의하면 중화전과 중화문의 서까래는 전량 목상 韓得珠에 의해 납입되기 때문이다.

45) 『慶運宮重建都監儀軌』 時日條 참고

어진 것은 이 건물들이 그 전과 같은 규모로 같은 위치에 복원된 탓에 새로운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목재와 같은 자재가 즉시 조달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중화전 등의 공사에 소용될 목재의 상당량은 즉조당 등의 완공을 즈음하여 경강변의 목재저류지인 경강변 사촌리에서 반입하고 있다[46]. 따라서 1차 복구공사의 목재 등은 직전까지의 營建都監에서 쓰고 남은 목재나 公儲의 비축 물량이었으며, 일부는 舊材를 仍用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직후인 3월 4일에 목재의 搬入과 工匠 등의 출입을 위한 門標 설치 지시 다음날인 3월 5일에 治木作業을 위한 假家 설치를 품의함과 동시에 치목작업을 시작하는 등 하루 만에 목재의 반입과 치목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役所 부근의 비축 목재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치목작업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즉조당을 비롯한 6개 건물의 복구를 완료한 7월 이후부터 중화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시작된다. 이 기간의 공사는 많은 건물들이 복구되기도 했지만, 새로이 건립되거나 이전의 건물과 달리 새롭게 설계가 변경된 건물들도 있었던 탓에 준비 기간도 많이 소요되었으며,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이에 1904년 8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약 29개월 간은 中和殿을 비롯한 咸寧殿, 中和門, 景孝殿, 咸喜堂, 養怡齋, 永福堂, 朝元門 및 각 殿堂 行閣의 중건이 이루어졌다. 또한 大安門을 수리하고, 德壽堂을 철거하며, 조원문을 철거 후 다시 세우는 등 많은 공사가 추진되었다. 그 외에도 담장이나 花階, 축대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등 이 기간을 통하여 궁궐로서의 대체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중화전과 함녕전은 가장 중요한 건물로서 기간도 가장 길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8월 13일에 개기를 한 것은 화재 이전의 건물과 달리 새로운 형태로 건립하는데 따른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위치에 세웠으나 重層을 단층으로 변경함에 따른 설계완료를 즈음하여 이에 합당한 목재 등을 조달하였다.

중건된 중화전의 면적이나 간살의 너비, 唐家, 座榻의 尺量은 그전과 다를 바 없으나, 중층이 단층으로 바뀌고, 처마의 길이가 커짐에 따라서 高柱나 平柱, 春舌, 서까래 등의 치수가 종전에 비해서 더 커졌으므로 당초 준비된 목재로는 합당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 별도로 목재의 작취 운송을 지시했던 것이다. 즉 1차 복구공사의 소요 목물과 달리 사촌리로부터 상당량을 반입하기 시작한 것은 중화전 개기 직전인 7월경이며, 이를 즈음하여 강원도와 전라도, 양주군 등지에 대량이나 추녀, 대연용 大材의 작취 운송지시가 내려지기 때문이다[47].

그러나 중화전에 소용될 이러한 목재의 수급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8월 13일에 개기를 한 후 정초까지 거의 4개월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당초 7월과 9월경에 강원도와 전라남북도에 卜定된 대량, 추녀재 등에 대해서 10월경에 다시 작취 운송지시가 내려지기[48] 때문이다.

강원도나 전라남북도, 양주군 등 外道 卜定의 대재 조달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재는 사촌리의 沙湖 江治木所로부터 반입되었으며, 鷺梁津이나 뚝섬과 같은 경강변에서 일부 반입되었다. 또한 新南營, 收稅所, 營繕司 등의 官衙에 비축된 목재의 일부를 반입하거나, 北闕, 東闕,

46)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照會 甲辰 6月 23日 內部條, "本都監所用木物自沙村里輸入…道路橋梁擧皆頹破車運未由…"

47)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 7月 27日 江原觀察府條 "中和殿重建所用大樑四箇春舌六箇道內所在可合者斫伐取用營繕司委員朴啓弘使喚旗手一名另派下送爲矣…斫伐輸運等節使附近地木商專管擧行…", 同 照會 甲辰 8月 15日 內藏院條 "中和殿重建所用大樑春舌現方斫取於江原道內…", 同 訓令 甲辰 9月 初10日 全羅南北觀察府條 "本都監役用大樑春舌長徑稍大難以求得而道內各道禁養木中適其可用者查檢以來次別定委員朴啓弘下送爲矣…", 同 22日 楊州郡條

48)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10月17日 江陵郡 蔚珠郡 平海郡條 "本都監役用大樑四箇四求不得嶺東各郡中可合者期於查得斫伐運上次本都監牌長張元俊另定下送爲矣…"

社稷, 含春苑, 長生殿, 毓祥宮 등과 같은 宮家에 비축된 물량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藪坪里, 南門外 停車場, 西山, 新坮洞, 駱山, 墨洞 등 서울 근교의 목재 소재지에서 작벌해 오거나 양주군의 昭寧園 園所에서 일부를 작벌반입한 경우가 있다[49]. 다만 창의궁 치목소의 경우는 사호 등지에서 보내 온 재목을 초련하기도 하지만, 初鍊材木을 창호부재로 정련하여 각종 창호를 제작한 다음 重建役所로 반입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50]

한편 중화전과 함녕전이 8월 13일에 개기하여 12월 16일에 상량하는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외의 경효전, 함희당, 양이재 등은 12월 3일에 개기하여 12월 28일에 상량까지 마치고 있다. 1905년 3월 18일에 정초하는 중화문과 6월 3일의 조원문,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12일에 시역하는 대안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1904년 12월 전까지 상량을 마친 상태였다.

따라서 1904년 12월 전까지는 중화문 등의 소요 물량을 제외한 기둥이나 대량, 추녀와 같은 구조부재의 대부분은 이미 반입되어 再·精鍊을 거쳐서 조립되고, 나머지 물량은 창호나 수장공사, 그리고 唐家, 座榻 등의 제작을 위해서 계속 반입되었다.

주요 구조재인 기둥, 보, 도리, 평방, 창방, 추녀, 사래, 서까래 등의 상당량은 1904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사호로부터 반입된다. 이에 반해 樓柱, 檜木, 劈鍊木, 引防材, 平交坮 등 지붕재, 수장판 등의 판재는 대부분이 12월 이후부터 반입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건물이 상량을 끝내고 수장이나 공답, 지붕, 내장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반입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1차 공사가 마무리되고 중화전 및 함녕전 등의 본격적인 2차 공사가 시작된 1904년 8월에서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인 1906년 9월 사이의 소재지별 목재 반입량을 『重建都監會計』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2차공사의 목재 반입 내역[51] (단위: 개)

소재지		沙湖	彰義宮	北關	東關	기타	합계	사호/전체 %
부재	柱	377	26	87		70	560	67
	樑	372	24	44			440	85
	春舌	17		15		10	42	40
	道里	703	95	95			893	75
	防材	1,912	51	72	2		2,037	83
	서까래	6,414	176	253	23	875	7,741	83
	마루판각재	418		15			433	97
	지붕판각재	9,856		1	120		9,977	99
	板材	7,673		135		983	8,791	87
	條理木	241					241	100
재목	大樑木	1,462			2	41	1,505	97
	不等木	1,398				4	1,402	100
	片木	854		6		20	880	97
	體木	1,726		1		26	1,753	98
	方木	2,241				116	2,357	95
	雜木	608	165	7	357	4,283	5,420	11
합계		36,272	537	731	504	6,428	44,472	82

여기서 목재는 반입 과정에서 목공사의 공역에 따라서 분류되어 해당 역소로 보내졌을 것이다. 다만 의궤나 『重建都監會計』, 『豫算明細書』에 나타난 소재지별 반입 목재는 50여종에 이르며, 북궐로부터 반입된 소로나 창의궁 치목소에서 제작된 창호와 같이 완제품도 있고, 대량, 부등, 송목 등의 재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10에서 보듯이 사호는 전체 소요 목재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나 부재의 주된 공급처였다. 특히 각 건물의 중심재목인 大樑木, 不等木, 體木, 片木, 方木과, 그 외 作骨된 판재인 지붕판각재와 마루판각재는 거의 전량이 여기서 반입되었다.

그러면 사호로부터 반입된 목재의 성격을 살펴 보기 위해서 儀軌 實入條와 稟目條, 『重建都監會計』, 『豫算明細書』, 『中和殿行閣 三門所

49) 『重建都監會計』 甲辰12月朔 會計條 "昭寧園所在中和殿所用春舌八箇斫伐時匠募雇價", 同條 "東闕所在大松二株斫伐時", 同 11月朔 會計條 "楊州長興面小泉洞所在中和殿椽木斫伐時各項役費" 등

50) 『重建都監會計』에는 이와 관련하여 彰義宮治木所에서 重建所로 各樣窓戶를 운반한 負持雇價를 月別로 정리해 두고 있다.

51) 여기서는 목재의 분류 기준이 되는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용처가 명시된 부재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서 용도가 결정되는 재목으로 구분하고, 부재는 다시 용처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用物種價未撥冊』,『德壽宮重建都監上下記』등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11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경운궁 중건공사 전체 실입 목재량과 갑진년 8월 이후의 2차공사 해당 시설물에 실입된 목재량, 사호 반입 목재량, 예산명세서의 주요 5개 건물에 대한 산정 목재량과 실입 목재량, 민간목상 납품 목재량을 정리하여 그 중 일부 목재를 대비한 결과이다.

표-11. 실입 목재량과 반입처별 목재량 대비 (단위: 개)

구분	중건공사 총실입수	2차공사 총실입수	사호 반입수	주요 5개 건물		韓得珠	韓龍植 등 11명
				예산	실입		
대량	2,407	2,200	992	1,585	1,702	910	
민대량	1,832	1,509	227	1,351	799	857	
별부등	3,535	2,384	610	781	1,528	400	
채목	1,424	1,219	1,023	50	50		
선자대연	674	452	288		128		
마족연	39	39		39	39	39	
대조리	822	742	83	791	103	144	
연함	13,960괄	13,510	11,822	1,500	3,600	1,500	
목 품 가 총액(냥)				813,176냥		475,917냥	581,397냥

여기서 보듯이 사호 소재 재목은 일부 보관중인 것[52]도 있었지만 대개는 민간목상들 소유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호 반입 목재 중 대량을 비롯한 주요 재목은 거의 목상 韓得珠가 납품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 기록된 한득주의 납입 목재는 대부분 중화전, 중화문, 중화전 행각에 들어 간 물량이며, 2차 공사의 중심 건물인 중화전 등 5개 건물의 전체 목물매입비의 60%를 차지한다[53]. 특히 목상 한득주가 납품한 목재 중의 대량과 민대량은 본 공사에 실입된 목재 가운데서도 수량이나 단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재목이며, 2차 공사 실입 목재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德壽宮重建都監上下記』에 의하면 본 공사에 목재를 납품한 목상은 韓得珠 외에도 韓龍植 등 11명이 더 있었다.[54] 이들의 총 납품액은 581,396兩 6錢 5分[55]으로서 한득주의 납품액보다 10만여냥이 더 많았다. 두 경우를 합한 목상들의 총 납품액는 5개 건물의 목물매입 예산총액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표-11과 같이 민대량과 마족연, 대조리는 사호 반입 물량이 한득주의 납입 물량보다 적기 때문에 한득주 외의 이들 목상들이 납품한 물량으로 볼 수 있다.

『重建都監會計』 기록에 잡힌 목재로서 사호로부터의 반입 물량이 2차 공사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목재는 대부분은 한용식 등 11명의 목상들이 납품한 것이다. 일부 外道에 卜定된 목재나 公儲의 비축 목재, 서울 인근 斫伐木을 제외하고 중건 2차 공사에 소입된 대부분의 목재는 목상들이 납품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창의궁치목소의 경우 사호로부터 반입된[56] 재목을 기둥, 보, 도리, 방재, 서까래 등 일부 소량의 부재로 치목하는 일도 맡았으나, 주된 작업은 어디까지나 창호의 제작이었다[57]. 이곳에는 사호 외에도 북궐이나 뚝섬에서도 재목을 반입하여 창호를 제작하기도 하였다.[58]

사호 다음으로 많은 목재를 공급한 곳은 북궐인데, 이로부터 조달된 목재는 小累와 같은

52) 『重建都監會計』 乙巳 6月朔 會計條 "沙湖所材烙印木物二百十介曳出雇價…"라는 기록에서 烙印木物이란 官에서 관리하는 목물로 보인다. 왜냐하면 曳出雇價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53) 목상 韓得珠의 납품목재와 비중에 대해서는 4-3절 木商의 納品에서 다루므로 참고.

54) 韓龍植 外 黃順弼, 金聖俊, 李興雨, 劉聖浩, 李善有, 李沔鎬, 姜台信, 金鳳鎭, 李應俊, 金善哉 등이다.

55) 그 중 가장 납품액이 많은 이는 韓龍植으로, 총액의 86%인 410,961냥 5전이다.

56) 일례로 『重建都監會計』 甲辰 8月朔 會計條 " 沙湖所來大樑六十二介短大樑一百九介短吐五十五介修粧板二百七十立輸入彰義宮治木所車運雇價…"

57) 이와 관련하여 『匠役記綴』 卷1~18에는 「窓戶木物引條役記」를 매일별 정리하고 있다. 이를 도맡은 사무조직원은 牌將 玉聲潤이었다.

58) 『重建都監會計』 甲辰 11月朔 會計條 "北闕所在材木移運彰義宮治木所雇價…", 同 光武10年 5月朔 會計條 "纛島所來大樑十介民大樑四介輸入彰義宮雇價…", 한편 彰義宮 창호소의 위치는 造紙署가 彰義門 밖에 위치한 것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년, p.51

공포재 등 주로 2차 가공된 반제품이다. 북궐의 경우는 公儲 비축 물량으로서 營繕司, 收稅所, 毓祥宮, 그리고 일부 東闕 소재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부터의 반입 물량은 서까래, 판재, 벽련목 등 가공된 반제품으로 되어 있다.

그 외 昭寧園, 西山, 沙阿里, 新橋, 孝昌園, 楊州 廣松里, 七松亭, 新南營, 藪坪里, 長生殿, 新坮洞, 駱山, 含春苑, 墨洞, 社稷, 內外南山에서도 반입되는데, 이곳 산록에서 松木, 眞木 등을 작취해 반입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斫伐地에서 초치련 후 운반하는 예도 있었다.[59]

기계목류로서 鷺梁津 소재 機械所用 步板, 軍器廠 소재 擧重機, 園所 소재 달고 등 관아 물량은 쓰고 돌려 보내기도 하고,[60] 가옥을 매입해서 구재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로서 乙巳 6月에 崔命熙의 瓦家 20칸을 9,000냥으로 사들이는데,[61] 이 부재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해 8월에는 演慶堂을 훼철한 재목을 운반해 들이는[62] 등 촉박한 공사일정에 목재의 수급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같다.

그러면 이러한 목물의 반입시기를 살펴 보자. 『重建都監會計』 甲辰 八月朔 會計에서 光武 十年十二月朔 會計를 보면 목물의 반입은 공사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예로서 기둥, 보, 도리, 창방, 평방, 추녀, 사래 등의 경우 1904년 8월에서 동년 12월 사이에 반입이 집중된다. 이는 중화전과 함녕전을 비롯한 각 중요 전당들의 입주 및 상량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공사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목은 해당 공역에 앞서 반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1905년 4월, 5월과 동년 11월부터 1906년 2월까지 목재의 반입 기록이 없다. 앞의 2개월의 경우는 주요 전각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소규모의 門이나 중화전의 좌탑 및 당가 등의 공사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같은 해 6월 朝元門 定礎 및 立柱가 있기 전인 4월 중에는 宮內府 侍講院 등의 소규모 건물과 光明門 등의 각종 小門에 소입되는 재목에 대한 품의가 하달되고[63] 있을 뿐 다른 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소요물량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어쨌든 목재의 반입이 중단되는 데서 원활하지 못한 수급사정을 엿볼 수 있다. 동년 6월 15일 목재의 水運 지연으로 都監에서 使喚旗手를 江邊에 내려보내 독려를 지시하고[64]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약 4개월간의 경우는 공사의 완료 시점이라서 물량의 추가반입이 없었던 것같다. 1905년 9월 조경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고, 준공식, 都監 都提調 이하 別單 작성, 供饋 등의 요식적인 행사를 남겨 두고 있었다. 1906년 4월에는 大安門 수리공사만 이루어졌던 것이다.

4-3. 木商의 納品

본 공사에 목상들이 납품한 목재의 총량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2차 공사의 목재는 대분분의 물량을 목상들이 납품하였다.

당시 목상들이 납품한 목재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南署 茶洞을 근거로 하던 목상 韓得珠의 경우이다. 그가 납품한 목재는 단가 120원짜리 대량 6개를 포함한 대량 910개, 민대량 857개, 별부등 400개, 서까래 1,782개 등 총 29종으로 거의 모든 목물이 망라되어 있다. 그 총액도 95,183원 30전으로 이를 냥으로 환산하면 475,916냥 5전으로서, 중화전 등 5개 건물의 총 목물매입 예산인 813,176냥 3전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득주의 납품내역은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서 상세히 볼 수 있는데, 이를

59) 『重建都監會計』 甲辰12月朔 會計條 "昭寧園所在中和殿所用春舌八箇船匠治鍊工錢", 同 乙巳 3月朔 會計條 "中和殿所用西山所在椽木初治鍊船匠工錢…"

60) 『重建都監會計』 甲辰 12月朔 會計條 참고

61) 『重建都監會計』 乙巳 6月朔 會計條 "聽 令崔命熙瓦家二十間價九千兩印"

62) 『重建都監會計』 乙巳 8月朔 會計條

63)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稟目 乙巳 4月 初 1日條, 同 4月 20日條 참고

64)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照會 乙巳 6月 15日條 참고

예산명세서의 5개 건물의 소요목재 산정량과 비교하면 표-12와 같다.

여기서 목상 한득주가 납품한 재목이나 치련된 부재들은 전부 2차 공사의 주요 건물인 중화전과 중화전 행각, 중화문 등 3개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 그가 납품한 총액은 3개 건물의 총 목물가 예산 620,66.5냥의 약 77%에 해당된다. 그는 당초 3개 건물의 예산치 물량을 도맡아 납품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중간에 건물 규모가 변경되고, 목재의 수급사정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부족으로 납품 금액의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65] 등의 이유로 완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주요건물의 목재 산정량과 목상 납품량 대비

목재명	단가(냥)		수량(개)		소입처
	예산	납품	예산	납품	
대량	600	좌 동	6	6	중화전
	350	"	300	100	중화전
	300	"	312	72	중화전, 중화문
	280	"	144	144	중화전 행각, 중화문
	220	"	688	588	중화전, 중화전 행각
민대량	86	"	1,351	857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
별부둥	50	"	581	400	200개는 기계보판 소용
피두리	50	"	550	550	중화전
장연	53.5	"	76	76	중화문
	45	"	180	180	중화전
단연	29.5	"	70	70	중화문
	24	"	228	228	중화전
	14.6	"	980	980	중화전 행각
선자연	63.5	"	112	112	중화문
	50	"	136	136	중화전
마족연	16.5	"	39	39	중화전 행각

그 밖에도 韓龍植 등 11명이 납품한 목재도 상당한 물량이다. 이들의 납품 물량은 한득주의 경우와 달리 그 내역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호에서 이들이 납품한 것 중에서 한용식이 납품한 총액은 82,192원 30전, 즉 410,961냥 1전 5푼에 달한다. 이 금액은 앞서 한득주의 납품 총액에 버금가는 상당한 액수이다. 엄청난 액수인 만큼 이들 목상이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납품 액수가 반드시 부의 축적도와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국용 목재의 상당물량을 납품한다든지, 엄청난 액수로도 이들을 목재시장의 유통과정을 장악하던 거상으로 보아도 되겠다. 예로서 한용식은 日帝 기간에도 國用木材의 공급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사실이 기억되기도 하였다.[66]

표-13. 광무 10년 목물가 회계 내역

구 분	내 역	지출금액
1, 2월 삭	목 물 가	5,400 원
3월 삭	"	750 원
4월 삭	"	500원
5월 삭	"	750원
6월 삭	"	500원
7월 삭	"	1,000원
8월 삭	"	800원
9월 삭	"	500원
10월 삭	"	600원
11월 삭	"	500원
12월 삭	"	2,597원
계	"	13,897원

한편 목상들에 대한 목물가의 지급에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납품액의 상당 액수가 체불되는 등 목물가에 대한 회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표-13에서 보듯이 1906년 한해 동안 총 13,897圓의 木物價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내용은『重建都監會計』光武 1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회계내용으로서 목재의 반입처나 종류를 명기하지 않은 채 매월 목물가 중 일부를 지급한 회계 중의 유일한 기록이다. 이 금액은 7만냥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그 기간에도 沙湖나 外南山, 駱山 등지로부터 반입된 大樑, 民大樑, 松木 등에 대해서 돈이 따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액수는 전체 목물가일 수는 없고, 매월 거의 같은 액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간의 체불된 목물가를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04년 11월과 1905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자금이 부족했으며, 1906년 1, 2, 12월에는 그간의 밀린 공사비를 지원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中和殿行閣 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로부터 실제 공사에서 목재매입비와 석재나 철물, 기와 등 여타 자재의 매입비와 비교해 볼

65) 총액 95,183원 30전 중 2월 선불금이 1만원에 불과

66) 배희한 구술, 앞의 책, 1981, p. 47~48

수 있는데, 표-1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私商들이 납품한 각종 물종의 총액은 263,056元으로서, 1,315,280냥으로 환산된다. 납품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목물가로 납품총액의 36%인 475,916냥 5전이다. 그밖에 瓦甎 21%, 石物 14%, 石灰 9%, 泥土 6%, 鐵物 5%, 大爐 5% 등의 순이다. 이를 표-8의 공종별 예산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난다. 이는 건축자재라도 일부 工賃이 포함된 완제품이나 반제품도 있고, 순수한 재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나 공종별 현장 공역을 거치게 되므로 자재매입비이지 공사비는 아니다. 또한 이들 자재비가 中和殿行閣三門 단위건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에 납품한 자재비[67]이기 때문에 두 자료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표-14.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 청구내역

구분	금 액(元)	先撥金(元)	납품상인
木物	95,183.30	10,000	南署 茶洞 木商 韓得珠
石物	38,046.40	1,000	中署 司僕川邊 石商 裵學成
鐵物	12,644.14		中署 布屛 鐵商 金顯圭
大爐	11,289		西署 阿峴 大爐匠 鄭致中
大瓦	40,069.30	480	中署 壽洞 大瓦商 劉錫桓
常瓦	198.20		中署 鉢里洞 上瓦商 盧德中
中瓦	13,200	1,056	中署 相洞 中瓦商 金允鎭
方甎	420		西署 龍山 方甎商 金仲弼
石灰	24,820.80		西署 需內 石灰商 金孝直
泥土	15,498.80		北署 齋洞 泥匠 牌將 李泰興
銅絲	6,800		南署 泥峴 日本人 釘本
雜物	4,889.72		中署 洞口 雜物商 金允根
계	263,056	12,536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일반 민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로서 석물 중의 단가 60원인 龍板石을 포함한 雲階石, 小龍石, 品碑石 등이, 大爐로는 1坐의 단가가 4,777원인 龍香爐와 龍頭吐手釘, 瓦甎으로는 鷲頭, 龍頭 등이 있다. 이것들은 기성품은 아니고 외주를 통해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의 건축자재 시장의 저변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들 납품상 가운데 泥土를 납품한 泥匠牌將 李泰興과, 銅絲를 납품한 일본인 釘本이 주목된다. 대부분 물종별 상인인데 반해서 이태흥이 공장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상인과 공장의 겸업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銅絲 납품상인 일본인 釘本의 경우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용산지역의 일인 목상의 활동[68]과 함께 당시대 일본자본의 유입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하겠다.

한편 표-14는 물종별 납품액에 대한 未撥, 즉 체불액인 만큼 상인들의 고충도 심했을 것이다. 실제 납입 물품의 선지급액은 전체적으로 5%도 안되었으며, 이후 이들에 대한 체납액을 지불한 흔적도 『重建都監會計』에서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체불은 이들에 한하지 않고 다른 자재비나 인건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69] 따라서 이러한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은 당시의 공사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맺는말

불의의 화재로 인한 복구차원에서 조선왕조 최후의 궁궐조영인 경운궁 중건공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국왕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다. 1904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서 막대한 물량이 소요되는 대역사였던 만큼 재원의 확보는 쉽지 않아서 內下錢과 度支部移來錢, 內藏司移來錢 만으로 부족하여 전후년도의 結錢을 앞당겨서 임시변통으로 挪用하기도 하였다.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각종 목물과 공역의 조달은 공사추진의 절대관건이었다. 가합목재의 구득도 쉽지 않았으며, 엄청난 물량이 소

67) 총자재비 263,056원은 1,315,280냥으로 환산되는데, 소규모의 행각 삼문으로는 턱없이 과대하다. 석물로도 龍板石, 雲階石, 小龍石, 品碑石이, 大爐로는 龍香爐와 龍頭吐手釘, 瓦甎으로는 鷲頭, 龍頭 등 많은 물품들이 삼문 단일건물과는 무관한 것들로서, 이는 중화전, 중화전 행각, 중화문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8) 李權英 외, 앞의 논문, p. 26, 주)124 참고

69) 資材費와 人件費를 포함한 工事費의 延滯와 請求에 대해서는 金純一, 앞의 논문, pp. 60~67을 참고

요되는 만큼 이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목공사와 관련한 실질예산의 산출은 낭비요소를 없애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견적서로서 주요공사인 중화전 등 5개 건물에 대해서 공사예산을 산출한 예산명세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예산명세서에서 목공사의 예산은 목물매입비, 공역비, 운반비로 구분되어 산출되는데, 이는 당시로서 가장 합리적인 근거라 할 것이다. 여기서 목물매입비는 각 건물에 소요되는 부재별 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變製할 원재별 수량에 대한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산출하였다. 부재의 변제과정은 거의 재여목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계량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원재는 당시의 시장유통 목물로서 단가도 유통가격을 준용하여 책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재를 치련하는 공역은 초련과 정련으로 크게 나누어서 각 공역의 성격에 따라서 공전을 산출하였다. 초련공전은 원재의 변제과정에 참여하는 걸거장 두절, 선장 초치련, 기거장 등의 작골에 대해서 각기 절, 척, 골 당 도급방식으로 단가를 책정하여 총액을 산출하였으며, 목재의 크기와 공력의 정도에 따라 단가는 차등 책정되었다. 정련공전은 입배공장을 대상으로 공역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일급과 매칸당 소요인원을 책정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변형된 도급 방식으로서 당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운반비는 운반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車運, 駄運, 負持雇價로 구분하고, 목물의 종류에 따라서 輛 또는 駄의 수를 달리 산정하였다. 輛當 단가나 駄當 단가는 일정하나 운송거리는 사촌리로부터 闕內까지의 단일운송로를 기준으로 잡았다.

각 시설물의 총공사비에 대한 업종별 비중은 목공사의 경우에 궁궐건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의 41%로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높다. 다만 포석, 기단, 석계 등이 소요되는 석공사가 그 다음으로 25%이며, 泥匠工事 10%, 蓋瓦工事 8%[70], 鐵物工事 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목물매입비의 목공사비에 대한 비중은 58%나 차지하는데, 이는 당시의 공사에서 목물의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원재를 부재로 변제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정을 기초로 작성된 예산명세서의 작성도 목물 조달과정에서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는 의도라 하겠다.

한편 치련공전은 목공사비의 36%, 그리고 운송고가는 7%를 차지한다. 중화전과 같이 큰 규모에 복잡한 구조일수록, 또는 함녕전과 같이 실내 수장공사의 비중이 클수록 치련공전은 많이 산정된다. 이에 반해서 많은 칸수에도 단순한 구조의 행각 건물은 목물매입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대신 치련공전의 비중은 낮게 산정된다.

목재의 종류별로 보면, 목물매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량이다. 총액의 53%에 달하며, 예산명세서나 실제 납품된 종류로도 6종의 단가로 책정되는 만큼 궁궐건축에서 구조재 뿐 아니라 공포재나 수장재 등 가장 다양한 용도로 변제 가능한 재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공사에서도 목물조달의 주 대상으로서 상당량은 경강 저류목을 사용하지만, 특히 큰 치수의 대량은 산지 외도의 작벌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서까래는 단일 용도의 지붕재로서 특정 치수와 형태가 요구되므로 별도의 수급과정을 거치기기도 한 만큼 총액의 16%나 차지한다. 그 밖에 창방과 같은 보조 구조재나 수장재, 또는 소규모 건물의 구조재로서 산정되는 민대량은 14%, 부등목은 4%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일부 건물에서는 재목이 아닌 치련

70) 예산명세서에는 중화전 행각의 개와공사비 내역이 빠져 있다. 이는 기록의 누락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된 부재를 산정하거나, 창호를 외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창호 외주예산은 목물매입 총액의 8%인데, 여타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서 당시 민간의 목물 관련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치련공전의 경우는 입배공장에 의한 정련공전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83%로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그 만큼 초련 공역에 비해서 한층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구조의 행각 건물에서는 그 비중이 52%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한다.

반면에 초련공전은 비교적 반복되는 단순 작업으로서 공역별로는, 선장 초치련이 58%, 기거장이나 조리장의 작골 34%, 걸거장의 두절 8% 순으로서, 선장 초치련 공전이 절반을 상회한다. 특히 건물에 따라서 작골이 불필요한 부재가 많이 사용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치련 공전의 비중이 높아지며, 초치련이 필요없이 바로 작골을 하는 부재의 사용이 많을 경우는 오히려 작골 공전의 비중이 높아진다.

한편 예산명세서는 일부 수정은 있었겠지만, 본 공사에서 중요한 실행 근거로서 적용되었다. 다만 중화전 행각의 경우에 이에 연결되는 중화문이 4칸 退築됨에 따라서 규모가 확대되고, 실입 재목이나 부재의 물량도 예산치보다 증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타 건물은 거의 규모나 형태상의 변경은 없었으므로 부재의 추가나 감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창호의 경우는 함녕전과 행각에서 외주를 통해 매입코져 하였으나 실행단계에서는 창의궁 치목소에서 이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설계변경 외에도 목물의 수급사정에 따라서 실입 재목의 종류나 수량이 바뀌기도 하였다. 수급사정의 악화는 가합 재목의 구득여부가 일차적인 원인이겠으나, 납품 목물가의 체불과도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진년 8월 이전의 1차 공사기간에는 公儲의 비축목물을 이용했으므로 단기간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화전 등의 2차 공사에서는 소요 물량도 엄청났을 뿐아니라 대들보나 추녀용 대량이나 서까래 등의 구득이 여의치 못하여 공사 착수도 상당기간 지체되었다. 예산과 실입에서의 차이는 이러한 목물의 수급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 갑진년 8월 이후의 2차 공사에서 중화전 등 주요 전각의 목물은 대부분 목상들로부터 납품되었다. 이 물량들은 외도나 서울 근교에서 작벌 운송한다든지, 북궐 등 公儲의 비축물량이나 철훼 재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의 경강변 사호 저류지로부터 반입되었다. 그 액수도 예산명세서상의 총 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목상 韓龍植과 韓得珠 2인이 납품한 물량은 5개 건물의 목물예산 총액을 초과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 물량은 당시 목재시장에서 거상으로서의 활동상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단서라 하겠다. 다만 목상들의 납품가에 대한 지불이 지체되기도 하고, 아예 미지급 상태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불합리성은 당시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사의 추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慶運宮重建都監儀軌』, 『德壽宮重建都監上下記』, 『匠役記綴』, 『重建都監會計』,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木撥冊』,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

金純一,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硏究 -工事의 體制와 執行을 中心으로, 東國大 박사논문, 1983

배희한 구술,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년

李權英 외,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硏究, 건축역사연구 14집, 1998. 3

A Study on the Estimated, Executed Cost of Woodwork in the Construction of the Kyongwoon Palace

Lee, Kweon Yeong
(Assistant Professor, DongPusan College)
Seo, Chi Sang
(Associate Professor, TongMyong Univ. of Information Tech.)
Kim, Soon 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construction is efficiently to use material and manpower related in the construction. From the preplanning stage to the completion one, a program planner must sufficiently consider the whole field of construction in terms of cost.

The estimating account books were written and left in the Construction of the Kyongwoon Palace reconstructed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Trough those book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this paper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estimated, executed cost of woodwork in those days.